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1.60원 하락한 1,229.30원에 마감

06일 달러-원 환율은 미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기대에 전 거래일 대비 1.60원 하락한 1,229.3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37.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미 고용지표 악화 및 원유 감산합의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따라 하락 반전하였으며 장 마감까지 서서히 낙폭을 키우다 1,229.3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33.4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40.07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37.00	1238.30	1228.10	1229.30	1233.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33.76	1138.49	1123.28	1126.06

금일 전망

코로나 진정국면 전환조짐... 1,220원 중후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유럽 및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진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29.30원) 대비 5.25원 하락한 1,223.2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유럽 및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세 둔화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도 신규 사망자 혹은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었다. 또한 미국에서도 뉴욕의 신규 사망자가 600명 아래로 떨어져 코로나 통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美증시는 이상의 코로나 국면 전환조짐에 따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일 환율은 이러한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경제활동이 바로 재개될 수는 없다는 시각 및 세계경제 펀더멘탈 둔화 시각에 따른 경계감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20.00 ~ 1230.00 원
------------------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19.17억원

체크포인트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25원 ↓
	■ 美 다우지수 : 22679.99, +1627.46p(+7.7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4.3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14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